



3면

이낙연 "중심을 잡고 당력 모아 문재인 정부 성공 이끄는 것이 중요"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음 6월 18일) 제259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 기초·광역·중앙정부 아우르는 행정경험 겸비 전북 최초... 17개 시도 공동변영 헌안해결 과제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영산회의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제46차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되었으며 역대 전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하진 도지사가 처음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고 민선 4~5기 전주 시장을 거쳐 민선 6~7기 전라북도지사 맡고 있다.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행정경험이 풍부해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 근무 시절 교부세과장과 지방분권과장을 역임해 시도지사협의회 최대 현안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해결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자치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 실현 등 17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시도의 인사 및 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야 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대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중앙지방 협력기구(가칭 제2국무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재정격차를 완

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분권 상대적 낙후지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지방자치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말했다.

이어 "시도의 인력, 조직,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17개 시도의 공동 변영을 이루

도록 차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6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도청 영산회의로 개최된 제46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통합적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자치·분권·균형 디딤돌 역할 자강불식 자세로 도민성원 보답”

### 송지사 “중앙·지방수평적 관계 형성 노력할 것”

역대 전북도지사 중 최초로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장을 맡게 된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와 수해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오랫동안 꿈꿔온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데 대해 송 지사는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 바램이 큰 힘이 된 것 같다”면서 “전북 최초라는 영광에 부끄럽지 않게 자강불식(自強不隳)의 자세로 노력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송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며 “포스트코로나는 산업과 경제 뿐 아니라 정치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아울러야 하며 지방분권이야말로 정서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을 향한 첫 번째 변화는 지방정부로 격상을 통한

중앙과 지방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명칭 개정 등에 노력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낙후한 지역에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1~2년이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재정확충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17개 시도와 협력해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 자치,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40여년 동안 쌓아온 지방행정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낼 수 있는 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희망했다.

/유호상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하지만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제한되며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등이 제한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시군청 일자리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사업자와 휴폐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바로 일하고 싶은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에 또 비... 최대 300mm

전주시상지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지역은 7~8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200mm로 예상됐으며,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예측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강수량은 장수 103.3mm, 남원 뱀사골 67.5mm, 익산 여산 63.0mm, 임실 강진 53mm, 부안 위도 51.5mm, 진안 46.5mm, 정읍 내장산 45mm, 남원 40.2mm, 순창 37.8mm, 군산 28.2mm, 완주 26.9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 도, 취업 취약계층 1만명에 '희망일자리'

### 생활방역 등 10개 분야 450억 투입... 2~5개월 단기

전북도가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에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심어줄 '전라북도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 자리를 제공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53억원을 들여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희망일자리사업'은 생활방역 부터 환경정비, 재해예방,

긴급 공공업무 지원, 지역맞춤형 특화 일자리 등 10개 유형의 사업을 통해 총 1만687명의 도민에게 2~5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유형은 ▲생활방역 지원(883명) ▲공공휴식공간 개선(2,168명) ▲긴급 공공업무지원(1,729명) ▲청년 지원(889명) ▲소상공인 및 농어촌 활동지원(824명) ▲지자체 특성화사업(2,679명) 등 10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도내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관, 어린이

집 등에서 발열 체크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나,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등에 투입된다.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 일자리사업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신청 자격이 저소득층,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됐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군산시의회

###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의회’

## 코로나19 극복! 군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